

#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나눔 실천”

## 대한적십자사 '최고 명예대장' 수상 백진선씨

### 22년간 2주에 한 번씩 총 300회 이상 달성 “남 도울 때 보람 느껴...헌혈 500회가 목표”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보람도 얻고 건강관리도 가능하니 정말 좋습니다.”

최근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22년간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헌혈을 하는 등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최고 명예대장을 수여받은 백진선(49)씨가 그 주인공이다.

백씨는 지난 10월 헌혈 3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헌혈유공장인 최고 명예대장을 수여받았다.

헌혈유공장은 혈액사업에 공적이 있는 다회헌혈자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여하는 포상으로 헌혈횟수에 따라 은장(30회), 금장(50회), 명예대장(100회), 명예대장(200회), 최고 명예대장(300회)으로 구분된다.

최고 명예대장을 수여받은 백씨가 처음 헌혈을 한 것은 고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2000년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졌다.

Rh 음성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난 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헌혈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그때부터 2주에 1번씩 헌혈을 시작했다.

Rh 혈액형은 ABO 혈액형과 같이 혈액형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D항원을 적혈구 표면에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음성과 양성 혈액형으로 분류하게 된다. Rh 음성 혈액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천명당 3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해 사람들이 헌혈을 피할 때도 늘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며 정해진 기간마다 나눔의 실천을 멈추지 않았다.



백진선씨 헌혈하는 모습

헌혈하기 전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 앞에서

는 크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백씨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분헌혈(혈장, 혈소판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전혈의 경우 2달에 한번 헌혈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성분헌혈은 2주에 한번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헌혈을 하다 보니 차차차씩 쌓인 헌혈 증서들은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그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수리하는 일 등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봉사가 취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즐겁게 참여하고 이를 통해 보람을 얻는다는 백씨는 “그냥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속스럽다. 봉사는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혈 500번을 하는 것이 목표”라며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두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현지 수습기자

## 김민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행안부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6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에서 김민지 보건연구사가 보건위생 분야 ‘감염병 대응 달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2010년부터 일반행정, 사회복지, 주민안전 등 9개 분야에서 탁월한 아이디어와 높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지방행정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시상제이다.

김 보건연구사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24시간 대규모 신속검사 체계 구축으로 재난형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국내 최초 양자암호 통신을 이용한 감염병 검사 전용 대응특 개발·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달인으로 선정됐다.

“지방행정의 달인” 공모가 시작된 이래 보건연구사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지 연구사는 “실현과 연구를 좋아해 선택한 보건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신종플루엔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진단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인지 시간이 쌓일수록 느끼게 됐다”며 “조급한 태도로 생각했던 도전이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와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연구사는 “수십 년간 국가와 지역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감염병 유행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선배들의 행동이 많은 귀감이 됐다”며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그 자리를 메꿔주고 뒤에서 지켜주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기 기자

## 조형호 전남대병원 교수 복지부장관 표창



전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가 최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22년 보건산업진흥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형호 교수는 전남대병원 개방형실험실 및 AI 헬스케어의료기기 상용화지원센터 책임자로서 병원 중심 창업 활성화에 헌신하면서 지난 5년간 총 16건의 특허를 출원(11건 등록 완료), 7건의 기술이전을 시행하는 등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교수는 “의료기술은 임상의와 기업이 협업할 때 필요한 기술을 빨리 실용화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병원과 의료기기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 지역의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 기자

## 오인재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질병청장 표창



화순전남대병원원은 6일 “호흡기내과 오인재 교수가 최근 서울 코리어나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심포지엄’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 의료 연구개발 연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뱅크 동향 및 인체자원 활용 우수사례 등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인재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 인체자원은행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연구업적 도출을 통해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오 교수는 지난달 20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로부터 융합연구상도 수상했다.

오 교수는 “현재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융합 연구 성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오복기 기자

## 본사 손님

### ▲박상민 한국전력커뮤니케이션처 언론홍보실장

### 결혼

●안근수(전 NH농협은행 지점장)·김덕자씨 아들 안근군, 박현택(TG영무 회장)·정순영씨 딸 현진 양=10일(토) 오후 1시 광주 웨딩홀 위더스 5층 연례홀.  
●노해섭(위키트리 소셜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장)·조영숙씨 장남 홍재(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군, 이상수(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부장)·노영숙씨 장녀 주연양=11일(일) 오후 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 부음

●박상희씨 별세, 민영돈·민정식·민정희씨 모친 상=8일(목) 오전 조선대병원장례식장 1호실(062-220-3352).



## 여성경제인협 전남지회, 사랑의 연탄나눔기 행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이하 전남지회) 김영 지회장과 회원들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나눔기 행사’ 활동으로, 전남지회 임·직원과 회원 15명이 참석해 연탄 2천여장을 전달했다.

김영 전남지회 회장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연탄나눔기를 하는 단체가 많이 사라졌다. 현재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태양열 주택 연료화 보급사업과 같은 지원방법이 변경돼 가는 추세다. 전환경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전남개발공사, 완도 소안면에 2ℓ 생수 2만1천개 지원

전남개발공사는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완도군 소안면 주민들에게 2ℓ 생수 2만1천개(32t·1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지속된 가뭄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소안 미라제 수원지 저수율이 4%를 밑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단수와 급수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아 고통을 받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소안면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생수 지원에 나섰다”며 “하루빨리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뭄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 국립광주과학관,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 봉사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일 ‘광주첨단산업단지 사회적가치 실현 커뮤니티’ 회원기관과 함께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 참여기관 임직원들은 무등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600kg의 배추를 김장했다. 담근 김치는 5kg씩 포장, 저소득 장애세대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20세대에 방문해 전달했다.

취약계층 분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봉사로 지역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첨단산업단지 내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광주첨단산업단지 사회적가치 실현 커뮤니티’는 취약계층 지원 외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활동(보육원 출신 취업연계·헌혈·재능기부) ▲자원순환활동(노후 전산장비 및 폐토너 기부) ▲캠페인 활동(클린데이) 등을 연중 추진해오고 있다. /최정희 기자



## 영암군, 고3 대상 '청소년 문화 두드림' 호평

영암군은 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관내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 두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로 진행된 ‘청소년 문화 두드림’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 기회가 적은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현장 활동들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지난 7월 연극 관람·실내 스포츠 체험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디어 아트 관람·루지 체험 등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했다.

특히 최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걸어서 서울 속으로’는 경기 용인시의 에버랜드 방문,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의도 한강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돌아보는 조별 활동을 펼쳤다.

어둠 속에서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는 체험, 박진감 넘치는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등을 통해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청소년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수련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다. ‘걸어서 서울 속으로’라는 주제에 맞게 대중교통을 타고 조별 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간 비운의 세대였지만 학생이란 신분으로 즐기는 마지막 여행이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겼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은 수능이 끝난 고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베이킹, 도예 캔들을 주제로 학교로 찾아가는 ‘고3 수험생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나동호 기자



## 목포 상동새마을부녀회, 취약계층 김장김치 전달

목포시 상동새마을부녀회는 최근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원, 새마을협의회 회원 등 20여명은 김장김치(배추 210포기)를 담가 독거노인, 저소득 소외계층, 관내 경로당 등 총 120개소에 전달했다.

김애선 상동새마을부녀회장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 이인주 대표,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3천만원 기탁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평생 헌신해 오고 있는 이인주 태흥축산 물류 대표가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금으로 3천만원을 기탁했다.

전남대병원원은 6일 “최근 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안영근 병원장과 이인주 대표를 비롯해 김영민 사무국장, 주재균 교육수련실장, 주덕 간호부장 등 병원 관계자와 김은세 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윤택민 전 전남대병원장(정형외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 이인주 대표는 “국제로타리 3710 지구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며 만난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의 환자를 향한 진심을 느낀 적이 많아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꼭 기부하고 싶었다”며



“전남대병원이 새병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복기 기자